

[칼럼 리뷰얼] 틀 안에서,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

2022-07-27
서화 [1157521]

저번 칼럼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
무지성 양치기가 아닌 생각하며 양치기하는 게 중요했죠.

그리고 생각하며 양치기한다는 건,
피드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.

이 과정에서 행동영역을 언급한 적 있는데요.
이제부터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.

행동영역을 만들었다면, 이제 버리세요.

...???

애써 피드백해서 만들어낸 행동영역을 버리라니,
이게 무슨 말일까요?

간단히 말하면
틀 속에서,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.

우선 행동영역을 마련했다면 그 방식대로 연습하겠죠?

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면화되면, 이제는 버리라는 뜻입니다.

단순한 습관만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.

A->B 형식의 행동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.

완벽하게 내면화되어 있던가,
현장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직관이 필요합니다.

이 직관을 위해서, 행동영역을 버리라는 말입니다.

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야겠죠.
틀 안에서,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.
규칙성 안에서의 자유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

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행동영역을 만들고, 내면화한 뒤, 얽매이지 않는다.

이게 현장에서의 압박을 이겨내고 당일 생각을 해낼 수 있는,
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자신합니다.